

‘박세리 투혼’ 서린 US오픈 내일 개막

14년전 우승한 블랙울프런 골프장서 샷 대결

박세리 포함 유소연·서희경·박인비 등 출전

한국여자골프교단이 14년 전 박세리(35·KDB금융그룹)의 ‘맨발 투혼’이 빛났던 블랙울프런 골프장에서 영광 재현을 노린다.

5일(이하 한국시간)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로 개막하는 USA여자오픈(총상금 325만 달러)이 그 무대다. 제67회가 되는 올해 대회 장소는 1998년 박세리가 한국여자골프 사상 최초로 메이저대회를 제패했던 미국 위스콘신주 콜러 블랙울프런 골프장의 힘파언십 코스(파72)에서 한국 골프팬들의 특별한 관심을 모이고 있다.

박세리는 당시 태국계 미국인 제니 주아시리폰과 대결에서 워터 해저드에 맨발로 들어가 샷을 날리는 투혼을 불사르며 연장 18번홀 흘까지 동타를 만들었다.

18홀 연장전도 모자라 다시 서든 데스 연장전을 치르게 된 박세리는 서든데스 두 번째 흘에서 승리를 거두고 메이저 펩피언 자리에 올라 골프팬들을 열광시켰다.

박세리 이후 김주연(2005년), 박인비(2008년), 지은희(2009년)에 이어 유소연이 지난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한국 선수들이 독무대를 이뤘다.

14년 만에 블랙울프런 골프장에 다시 서는 박세리는 “그때의 긴장감과 설렘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 출전하는 한국 선수 중에는 2008년 우승자 박인비(24)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박인비는 4년 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뒤 미국 무대에서는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지만 시즌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서희경은 26(·하이트)도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서희경은 작년 대회 때 유소연(21·한화)과 연장 접전을 벌인 끝에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고 매뉴라이프 대회 때도 연장전까지 잣다가 브리티시 랭(미국)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여기에서 지난해 우승자 유소연과 나비스코 힘파언 유선영, 한국의 에이스 최나연(25·SK텔레콤)이 가세해 여섯 번째 한국인 우승 타이틀을 노린다.

/연합뉴스

女배구 런던서 ‘몬트리올 영광’ 재현 나선다

김형실 감독 “1차 목표 8강…김연경 공격력 등 기대”

“1차 목표는 8강입니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배구가 따낸 동메달의 영광을 런던에서도 재현하고 싶습니다.”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여자 배구대표팀의 막판 단금집을 진두지휘 중인 김형실 감독은 정신력과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죽음의 조’를 넘어 메달을 노려보겠다고 비장한 각오로 말했다.

1997~1998년, 2005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로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된 김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블로킹과 공격력은 세계에서도 수준급”이라며 “서브 리시브와 수비 능력만 보완한다면 강호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세계랭킹 13위인 한국 여자 배구는 5월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세계예선전에서 러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8년 만에 12개 나라가 겨루는 올림픽 본선 무대 출전을 확정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국제배구연맹(FIVB)이 발표한 올림픽 조편성에서 미국

(1위), 브라질(2위), 중국(5위), 세르비아(6위), 터키(11위) 등 강호가 몰린 B조에 놓였다.

A조에는 비교적 만만한 영국,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도미니카, 알제리가 편성됐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각 조 상위 4개 팀이 8강에 올라 크로스 토너먼트로 준결승 진출 팀을决定了.

김 감독은 3일 “상위 랭킹 국가보다 전력이 떨어지고, 파워도 부족하나 김연경(터키 페네르바체)의 화력을 최대한 키우고 센터진의 공격 능력을 보강해 맞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샤라포바를 이겼다”

윔블던 테니스대회 단식 16강에서 랭킹 1위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가 자비네 리지카(15위·독일)에 0-2(4-6 3-6)로 저 틀렸다. 샤라포바를 꺾은 리지카가 코트에 무릎을 꿇은 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출신 김요한 3억500만원 ‘연봉 킹’

프로배구 선수등록 마감…여자부 김사나 2년 연속 1위

LIG손해보험의 김요한(27·광주 출신)과 흥국생명의 김사나(31)가 남녀 프로배구 최고 연봉자가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2012~2013 시즌 남자부 선수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 요한이 연봉 3억500만원을 받아 ‘연봉킹’

에 올랐다고 3일 밝혔다.

자유계약선수(FA)로 원소속팀 대안한 공과 계약을 완료한 김학민(3억원)과 지난 시즌 팀을 우승으로 이끈 삼성화재의 박철우(3억원)가 뒤를 이었다.

연봉 4, 5위는 삼성화재의 여오현(2억

4500만원), 고희진(2억3000만원)이 각각 차지했다.

여자부는 흥국생명 김사나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 1억9000만원으로 2년 연속 ‘연봉퀸’에 올랐다.

이어 현대건설 황연주(1억8500만원), GS칼텍스 한송이, 현대건설 양효진(이하 1억5000만원), 한국도로공사 김해란(1억 2100만원) 순으로 연봉이 높았다.

남자부에서는 팀 해체 위기에 놓인 드림시스를 제외한 5개 구단이 총 67명의 선수를 KOVO에 등록했다. /연합뉴스

산행 안내

일(토) 6시30분 열주체육관(광주역, 비엔날레 주 7시 60분) ~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장장 경유※【다음카페】: 광주토요산악회 합조 T. 010-614-3450 011-250-0284 010-3608-4267, 010-384-2849

7월14일(일)

▲광주여보전보설사회 제 271차 운암산(경기도)(토) 4시40분 브레타미드월드경기장 4시45분 시청주 010-3608-0921 【다음카페】: 남

20분)※【다음카페】: http://cafe.daum.net/joondahsa T.016-602-7980(광활점)

7월15일(월)

▲광주한울산악회(7월15일) 일) 보령 청주산&대전 청원 경유※【다음카페】: 광주한울산악회 7시30분 남광주군청 8시 4분에 회관문 8시15분 비엔날레주차장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hanall. T.011-625-5234, 010-4328-7700

7월16일(화)

▲광주둘레길호호회 충남 광주 마곡사 숲바람길 7월16일(화) 7시20분 열주체육관(7:30) 백운동 40분 열주체육관 50분 부각사 / 8시 문예회관 후 7:30: 00: 풍신고 8:00: 풍신고 9:00: 풍신고 10:00: 풍신고 11:00: 풍신고 12:00: 풍신고 13:00: 풍신고 14:00: 풍신고 15:00: 풍신고 16:00: 풍신고 17:00: 풍신고 18:00: 풍신고 19:00: 풍신고 20:00: 풍신고 21:00: 풍신고 22:00: 풍신고 23:00: 풍신고 24:00: 풍신고 25:00: 풍신고 26:00: 풍신고 27:00: 풍신고 28:00: 풍신고 29:00: 풍신고 30:00: 풍신고 31:00: 풍신고 32:00: 풍신고 33:00: 풍신고 34:00: 풍신고 35:00: 풍신고 36:00: 풍신고 37:00: 풍신고 38:00: 풍신고 39:00: 풍신고 40:00: 풍신고 41:00: 풍신고 42:00: 풍신고 43:00: 풍신고 44:00: 풍신고 45:00: 풍신고 46:00: 풍신고 47:00: 풍신고 48:00: 풍신고 49:00: 풍신고 50:00: 풍신고 51:00: 풍신고 52:00: 풍신고 53:00: 풍신고 54:00: 풍신고 55:00: 풍신고 56:00: 풍신고 57:00: 풍신고 58:00: 풍신고 59:00: 풍신고 60:00: 풍신고 61:00: 풍신고 62:00: 풍신고 63:00: 풍신고 64:00: 풍신고 65:00: 풍신고 66:00: 풍신고 67:00: 풍신고 68:00: 풍신고 69:00: 풍신고 70:00: 풍신고 71:00: 풍신고 72:00: 풍신고 73:00: 풍신고 74:00: 풍신고 75:00: 풍신고 76:00: 풍신고 77:00: 풍신고 78:00: 풍신고 79:00: 풍신고 80:00: 풍신고 81:00: 풍신고 82:00: 풍신고 83:00: 풍신고 84:00: 풍신고 85:00: 풍신고 86:00: 풍신고 87:00: 풍신고 88:00: 풍신고 89:00: 풍신고 90:00: 풍신고 91:00: 풍신고 92:00: 풍신고 93:00: 풍신고 94:00: 풍신고 95:00: 풍신고 96:00: 풍신고 97:00: 풍신고 98:00: 풍신고 99:00: 풍신고 100:00: 풍신고 101:00: 풍신고 102:00: 풍신고 103:00: 풍신고 104:00: 풍신고 105:00: 풍신고 106:00: 풍신고 107:00: 풍신고 108:00: 풍신고 109:00: 풍신고 110:00: 풍신고 111:00: 풍신고 112:00: 풍신고 113:00: 풍신고 114:00: 풍신고 115:00: 풍신고 116:00: 풍신고 117:00: 풍신고 118:00: 풍신고 119:00: 풍신고 120:00: 풍신고 121:00: 풍신고 122:00: 풍신고 123:00: 풍신고 124:00: 풍신고 125:00: 풍신고 126:00: 풍신고 127:00: 풍신고 128:00: 풍신고 129:00: 풍신고 130:00: 풍신고 131:00: 풍신고 132:00: 풍신고 133:00: 풍신고 134:00: 풍신고 135:00: 풍신고 136:00: 풍신고 137:00: 풍신고 138:00: 풍신고 139:00: 풍신고 140:00: 풍신고 141:00: 풍신고 142:00: 풍신고 143:00: 풍신고 144:00: 풍신고 145:00: 풍신고 146:00: 풍신고 147:00: 풍신고 148:00: 풍신고 149:00: 풍신고 150:00: 풍신고 151:00: 풍신고 152:00: 풍신고 153:00: 풍신고 154:00: 풍신고 155:00: 풍신고 156:00: 풍신고 157:00: 풍신고 158:00: 풍신고 159:00: 풍신고 160:00: 풍신고 161:00: 풍신고 162:00: 풍신고 163:00: 풍신고 164:00: 풍신고 165:00: 풍신고 166:00: 풍신고 167:00: 풍신고 168:00: 풍신고 169:00: 풍신고 170:00: 풍신고 171:00: 풍신고 172:00: 풍신고 173:00: 풍신고 174:00: 풍신고 175:00: 풍신고 176:00: 풍신고 177:00: 풍신고 178:00: 풍신고 179:00: 풍신고 180:00: 풍신고 181:00: 풍신고 182:00: 풍신고 183:00: 풍신고 184:00: 풍신고 185:00: 풍신고 186:00: 풍신고 187:00: 풍신고 188:00: 풍신고 189:00: 풍신고 190:00: 풍신고 191:00: 풍신고 192:00: 풍신고 193:00: 풍신고 194:00: 풍신고 195:00: 풍신고 196:00: 풍신고 197:00: 풍신고 198:00: 풍신고 199:00: 풍신고 200:00: 풍신고 201:00: 풍신고 202:00: 풍신고 203:00: 풍신고 204:00: 풍신고 205:00: 풍신고 206:00: 풍신고 207:00: 풍신고 208:00: 풍신고 209:00: 풍신고 210:00: 풍신고 211:00: 풍신고 212:00: 풍신고 213:00: 풍신고 214:00: 풍신고 215:00: 풍신고 216:00: 풍신고 217:00: 풍신고 218:00: 풍신고 219:00: 풍신고 220:00: 풍신고 221:00: 풍신고 222:00: 풍신고 223:00: 풍신고 224:00: 풍신고 225:00: 풍신고 226:00: 풍신고 227:00: 풍신고 228:00: 풍신고 229:00: 풍신고 230:00: 풍신고 231:00: 풍신고 232:00: 풍신고 233:00: 풍신고 234:00: 풍신고 235:00: 풍신고 236:00: 풍신고 237:00: 풍신고 238:00: 풍신고 239:00: 풍신고 240:00: 풍신고 241:00: 풍신고 242:00: 풍신고 243:00: 풍신고 244:00: 풍신고 245:00: 풍신고 246:00: 풍신고 247:00: 풍신고 248:00: 풍신고 249:00: 풍신고 250:00: 풍신고 251:00: 풍신고 252:00: 풍신고 253:00: 풍신고 254:00: 풍신고 255:00: 풍신고 256:00: 풍신고 257:00: 풍신고 258:00: 풍신고 259:00: 풍신고 260:00: 풍신고 261:00: 풍신고 262:00: 풍신고 263:00: 풍신고 264:00: 풍신고 265:00: 풍신고 266:00: 풍신고 267:00: 풍신고 268:00: 풍신고 269:00: 풍신고 270:00: 풍신고 271:00: 풍신고 272:00: 풍신고 273:00: 풍신고 274:00: 풍신고 275:00